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말씀 시리즈: 마가복음 강해 14

본문: 마가복음 2:23-28

| 서론

본 단락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사건으로, 흔히 갈릴리 논쟁의 **네 번째 논쟁**으로 불린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예수와 제자들을 비판한다.

갈릴리 논쟁 5가지 (마가복음 2:1-3:6)

1. 중풍병자 죄 사함 논쟁(막 2:1-12)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심.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고 반발함.
2.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사 논쟁 (막 2:13-17)
예수께서 레위(세리)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문제 삼음.
3. 금식 논쟁 (막 2:18-22)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음. 예수께서는 신랑 비유와 생배 조각, 새 포도주 비유로 응답하심.
4. 안식일 밀 이삭 논쟁 (막 2:23-28)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문제 제기됨. 예수께서는 다윗의 사례를 들며 안식일의 본뜻을 밝히심.
5. 안식일 병 고침 논쟁 (막 3:1-6)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 바리새인들은 이를 고발하려 함.

이 사건은 단순한 안식일 규정 위반 논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안식일의 본래 의미**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제자의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사례를 들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임을 분명히 하시며,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언하신다.

즉, 오늘 본문은 **규정과 전통의 틀에 얽매인 종교적 논쟁과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제자의 삶을 대비시키는 장면**이다. 갈릴리 논쟁의 네 번째 사건인 이 안식일 논쟁은, 단순히 바리새인과 예수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안식일과 예배의 참된 의미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된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안식일의 의미와 예수의 권위,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본론: 본문 주해1

Mark 2: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Mark 2: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하

1. 안식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고, 제자들은 길을 열며 밀 이삭을 자르고 있었다. 이 장면은 이후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사건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일이 어떤 날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담은 안식일

성경에서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창조와 관련된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섯 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며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 사건은 안식일의 근원이 된다. **둘째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 특히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안식일은 그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었다. 따라서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신앙의 날이었다.

2) 역사 속에서 더 강조된 안식일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안식일의 의미는 더욱 강해졌다. 신구약 중간사 시기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할례와 안식일 준수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에 강하게 저항하며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지켜냈다.¹ 이러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안식일은 단순한 종교적 규례를 넘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되었다. 따라서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었다.

¹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기원전 2세기 셀류코스 제국의 왕으로, 유대 지역을 지배하며 강한 **헬레니즘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유대인의 종교와 전통을 약화시키기 위해 안식일 준수와 할례를 금지하고 율법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등 신앙을 억압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해 광야 동굴로 피신하기도 했으나, **안식일에 공격을 받았음에도**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싸우지 않다가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마카비서 상 2:31-38). 이러한 사건은 결국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안식일과 율법 준수는 유대인의 신앙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2.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처럼 엄격하게 지켜지던 안식일에 예수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제자들은 길을 열며 밀 이삭을 잘랐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길을 열었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배고픔 때문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점을 기록한다**². 이 두 기록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제자들은 길을 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삭을 잘라 먹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앞에서 열며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는 마가복음 1장에서 선포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과도 연결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조금 앞서 열어 드렸을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행동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의 모습이였다.



이 장면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제자란 단순히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준비하며 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섬김일지라도, 주님의 길을 열어 드리는 삶이야말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다.

주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굳어 있는 마음이 열리고, 그 길 위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에 제자의 삶이란 거창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실 길을 묵묵히 열어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3.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비록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열고 있었지만, 안식일 준수를 매우 엄격하게 여기던 당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것이 **추수 행위**로 보였다. 따라서 그들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일상의 공간이 아니라 **밀밭**이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제자들이 가는 길가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다소 의아하게 느껴진다. 이는 **그들이 예수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의 명성이 점점 커지자 그들은 예수를 경계하며 그의 행동을 살피고 있었고, 그의 길을 따라다니며 무엇인가 문제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마침 제자들이 안식일에 노동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자, 그것을 꼬투리 삼아 예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² Matt. 12: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 장면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 준다. **예수의 길에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길을 열며 그 사역에 동참하지만, 어떤 이들은 같은 길 위에 있으면서도 비판과 판단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보다 그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기 어려울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기보다 오히려 그 행동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겉으로는 예수와 같은 자리 가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 나는 안식일을 단순한 휴식의 날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열어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위해 내가 열어 드려야 할 작은 섬김은 무엇인가?

| 본론: 본문 주해2

Mark 2: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밧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Mark 2: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Mark 2:27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Mark 2: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1. 다윗의 예를 통한 대답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 앞에서 예수께서는 세 가지 말씀으로 대답하신다. 먼저 예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하신다.³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도망하는 처지였고, 함께한 사람들과 매우 굶주린 상태였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였는데, 그때 성소에는 진설병 외에는

³ 1Sam. 21:1-6 다윗이 늪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 낸 것이더라

먹을 것이 없었다. 문제는 이 진설병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제사장은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떡을 먹었다. 율법의 규정만 놓고 보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다윗을 정죄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 준다.



1) 첫째, 사람의 절박한 필요 앞에서는 율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 속에서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당장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웃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물론 예수와 제자들의 상황이 다윗처럼 생명의 위기에 처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시는 길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며 죽은 영혼을 회복하는 길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새 출애굽의 길이다. 이러한 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 길에서 일어난 일을 단순한 규정 위반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예수께서 예로 드신 다윗의 사건은 구약에 기록된 **제사법**과 관련된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구약 율법 자체라기보다 그들이 만들어 낸 **안식일 규정**이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지만 그 구체적인 세부 규칙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명분 아래 여러 금지 규정을 만들어 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추수와 관련된 행위를 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문제 삼은 안식일 규정은 본래의 율법이라기보다 **사람의 전통**에 가까운 것이었다. 다시 말해 제사법과 안식일 규정 모두 지켜야 할 법이지만 **그 무게와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제사법조차 예외적으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의 전통에 가까운 안식일 규정이 예수의 사역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결국 예수께서는 **다윗의 사례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는 규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내신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규정도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사명 앞에서는 상대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규정의 틀 속에서 예수와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둘째, 성경이 다윗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으며 장차 왕으로 세워질 인물이었다. 그의 특별한 위치와 권위 속에서 제사법을 어긴 그의 상황은 어느 정도 너그럽게 이해되었다. 실제로 성경은 이 사건을 정죄의 대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길을 가며 그 앞

에서 길을 열듯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왕의 행차** 앞에서 길을 여는 장면과도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권위가 다윗의 권위보다 못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구약이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제사법과 관련된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하였다면, 하물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주이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사역 앞에서 사람의 전통에 가까운 안식일 규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더 중요한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눈앞의 규정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안식일을 넘어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그들 앞에서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출애굽의 구원이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해석의 틀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마치 현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 더 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신다. 구약에서도 다윗의 경우와 같이 예외가 인정되었다면, 하물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사역 속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율법 위반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안식일의 본질에 대한 대답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 쉬신 날로,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이 날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쉼을 누리는 날임을 보여 준다. 즉, 안식일의 핵심은 쉼과 회복, 자유이며,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날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은 점점 많은 규정과 금지 조항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특히 **신구약 중간기**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겪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민족 정체성과 신앙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며 지키려 했다. 그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를 넘어서는 여러 금지 규정들이 덧붙여졌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규정들이 본래 안식일의 은혜를 훼손했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날이었지만, 사람의 전통과 규정은 이를 억압과 짐으로 바꾸어 버렸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며, **율법과 전통이 본질을 가리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날을 사람들이 규정과 의무로 얽매어 버리는 순간, 참된 쉼과 회복, 자유는 사라지게 된다.

결국,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신앙생활과 주일 예배는 조건이나 의무를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다.



3.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나타난 “인자 같은 이”는 **신적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위임 받는 특별한 존재**, 그리고 **종말에 나타날 구원자**를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그 인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다. 즉, 예수는 단순한 선생이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권세를 부여받은 메시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직접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 칭하셨을까?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개념이 이미 제한되고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외세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군사적 지도자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러한 오해에 자신을 가두지 않으시고,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던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를 통해 단순한 민족적 구원자를 넘어, 종말에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 칭하신 것은, 안식일에 대한 권위 역시 예수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며, 모든 권세를 가진 인자이신 예수께서 그 의미와 사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다윗의 사례**를 떠올려 보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비 왕의 권위로 인해, 제사법을 어겼음에도 정죄를 받지 않았다. 하물며,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신 인자이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서, 제사법보다 아래에 있는 안식일 규정이 그분의 권위를 넘을 수 있을까? 그럴수 없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내세우며 마치 안식일의 주인인 양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언하시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고 계신다. 안식일은 사람을 얽매는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쉼과 회복의 은혜의 날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다.

§ 신앙생활에서 규정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안식일과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이 ‘은혜로 누리는 삶’임을 깨달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실천할 수 있겠는가?

| 결론: 안식일과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안식일과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된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나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의 날이다. 또한 예수께서 다윗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율법이나 사람의 전통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상대적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권위와 주권을 드러내신다. 그분은 사람을 얽매는 규정이 아니라, 자유와 회복,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규정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주님과 함께 길을 열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규정보다 사람과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임을 인정하며 그분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안식일과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을 깨달았을 때, 내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며, 은혜와 자유 안에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열어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 Quiz

1.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실 때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2. 예수와 제자들이 안식일에 걸어가는 길을 열어 준 행동을 통해 보여 주신 제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3.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창세기에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5.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는 안식일의 의미는?
6. 예수께서 다윗의 사건을 언급하신 이유는?
7.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
8.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 칭하신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9.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에 집착했지만, 깨닫지 못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10. 예수께서 안식일에 주인이심을 선언하신 의미는 무엇인가?